건양대학교 의료공간디자인학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Medical Space Design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al Engineering, Konyang University

김 영 애 Kim, Young-Aee
정회원, 건양대 의료공간디자인학과 교수
Professor, Konyang University
yakim1@konyang.ac.kr

학과 연혁

건양대학교 건축학과와 인테리어학과는 각각 1993년과 1998년에 개설되어 건축학부로 오다가 2002년 개별학과로 분리되었다. 건양대병원이 소재한 대전에서 의과대학 및 의과학대학이 메디컬캠퍼스를 조성하면서, 2012년 의료를 특성화한 의료공과대학을 만들었다. 이에 두 개 학과는 의료를 특성화하고 대전캠퍼스로 이전하여 의료건축디자인공학과로 시작하였다. 현재 의료공간디자인학과로서 고령화 사회 진입과 의료복지산업의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공간+건축을 디자인하는 융합학과로서 첨단의료기술의 발달과 감염관리 등을 반영하여 제품, 공간 및 병원을 설계하고, 시공 및 시설관리하는 실무형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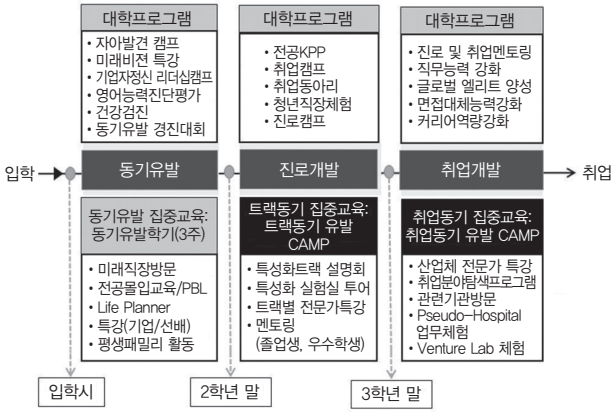

그림 1.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진로 로드맵

교육과정 개요

의료기관이 대형화, 첨단화되고 메르스같은 감염병 관리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의료공간 전문가의 역할이 기대된다. 우리 학과는 병원에서 요구하는 현장 실무능력, 국제화 마인드, 사회봉사 및 소통능력을 갖추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공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중심 교과과정으로 구성하며 휴먼 및 실용, 의료 및 이론, 표현, 디자인, 관리 등 다섯 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입학시에 동기유발학기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진로개발과 취업개발을 진행하여 진로와 취업을 지도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수체계

우리 학과는 올해 2017년에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변경하고 자기주도학습을 높이면서 비교과수업을 개설하여 보완하고 있다. 현재 4년제 130학점이며 교양 42학점, 전공 70학점, 자율전공 18학점으로 구성된다. 교양과정은 교양필수 13학점, 의료공대 중점 12학점, 공학기초 15학점으로 구성되고, 전공과정은 기본 40학점, 심화 30학점으로 구성된다.

3학년 1학기까지는 개설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고, 3학년 2학기에서 디자인트랙과 시공및관리트랙으로 구분하여 진로를 정하고 트랙별 교과목을 이수한다. 학

그림 2. 의료공간디자인학과 교과과정 연계도

점이수 이외에도 별도로 졸업인증을 두고 독서인증, 정보소양인증, 외국어인증, 설계인증을 통과하여야 졸업자격을 갖추게 된다(그림 2 참조).

교과과정 내용

우리 학과는 의료특성화를 반영하여 의료관련 이론 및 실습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대부분 교수와 의료진이 팀티칭으로 강의와 현장답사 및 체험을 통하여 진행하고, 건양대병원이 인접하여 의료진 참여와 현장답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의료관련 개설 교과목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의료시설 디자인에서는 치유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실내디자인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학과에서는 건축설계와 실내디자인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의료공간디자인 스튜디오 교과목은 필수 이수이며 1·2학년에서는 스튜디오 공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3학년에서는 스튜디오별로 건축설계와 실내디자인 프로젝트를 자유로이 선택하며, 고학년에서는 진로에 맞추어 디자인트랙과 시설관리트랙을 이수한다.

1학년 프로젝트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제와 공간구성 및 형태구성을 훈련하는 파빌리언과 창의의자로 진행하고, 2학년에서 단독주택과 상업건물의 건축설계와 실내디자인을 통해 의료공간 및 건축을 디자인하는 기본소양을 훈련한다. 이어 3학년에서 전문병원 또는 의원을 디자인하고 3학년 2학기에는 300병상 종합병원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의료기관을 디자인한다. 4학년에는 졸업설계로서 의료기관 관련 주제로 설계 또는 논문을 진행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1. 의료관련 개설 교과목

교과목명	학점/시간	내 용	교수자	교수방법
공간의학	2/2	공간환경과 건강관리	교수	강의
병원용어	2/2	질병 의학용어와 의료조직	교수+의료진	강의/현장
의료장비	2/2	의료장비 구조와 설비	교수+의료진	강의/현장
의료공간계획론	3/3	병원공간계획 및 설비	교수	강의
의료활동분석	2/4	병원 의료활동분석 및 실습	교수+의료진	강의/현장
의료공학특강	1/1	병원 센터별 활동 및 구조	의료진	강의
의료서비스경영론	3/3	서비스디자인과 의료기관경영	교수	강의/현장
근거중심의료디자인	2/2	환자의료진 활동관찰 근거중심 디자인	교수	강의/현장

표 2. 디자인스튜디오 개설 교과목

교과목명	학점/시간	프로젝트		교수방법
창의설계 1	2/3	Design for Everyone		팀/개인작업 스튜디오, AL
창의설계 2	2/3	파빌리언/창의의자		
공간디자인 Ⅰ	4/6	단독주택/실내디자인		개인작업 스튜디오, AL
공간디자인 Ⅱ	4/6	상업건물/실내디자인		
의료공간디자인 Ⅰ	4/6	전문병원	의원실내디자인	팀작업 스튜디오, AL
의료공간디자인 Ⅱ	4/6	300병상 종합병원	병원리모델링	
종합설계프로젝트 1	3/6	설계(자유)	논문(자유)	
종합설계프로젝트 2	3/6			

*AL은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방식이다.

디자인 스튜디오는 각 학년에서 배워가는 표현교과목과 연계 통합하여 성과물을 작성하고 있다. 1학년 2학기에는 2D그래픽 및 CAD를 공부하고 이를 활용하여 창의설계2 과제 결과물을 작성하며, 2학년 1학기에는 BIM을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공간디자인I에서 건축 및 실내디자인을 표현한다. 2학년 2학기에는 3D컴퓨터 MAX 프로그램을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작성한다.

트랙과 진로 취업

우리 학과는 입학하면 가르쳐서 취업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진로 및 취업을 지도하고 있다. 고학년에서 트랙은 디자인과 관리로 구분하며 디자인트랙은 퍼블릭프로덕트디자인, 치유색채디자인, VMD, 실시설계, 디자인매니지먼트 등 교과목을 통해 디자인역량을 심화하고 헬스케어업체, 인테리어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여 취업한다.

관리트랙은 의료건축설비, 적산과공정, 역학과구조, 시설안전관리, 관리실무 등을 이수하고 건축기사 또는 안전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설회사, 종합감리회사, 종합병원 시설팀 등에 취업한다.

의료 특성화 교육을 반영하여 취업에 있어서도 의료 또는 병원팀을 갖춘 인테리어 또는 건축설계사무소, 병원시공경험을 갖춘 건설회사, 병원 시설안전관리자 등 전공에 부합되는 취업처 발굴과 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과 변화와 지원

우리 학과에서는 교과과정 변경에 대해 의료팀 건축설계사무소, 인테리어사무소, 병원실적 건설회사, 의료건축학계, 병원시설팀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2~3년간 피드백을 진행하였고 이후에는 병원기획실장 등의 전문가평가 등을 통해 교과목을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우리 대학교와 의료공대에서도 전공의 변화에 맞추어 교수의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내 연수, 각종 프로그램 재교육 비용 지원, 학과별 국내 전문가 특강, 의료공대 병원실습 임장지도 등을 지원해 왔고 신임교원을 채용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CK 특성화사업, 공학혁신센터 사업, LINK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학과, 학생 및 교수의 역량을 높이고 학과를 홍보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우리 학과에서 매해 15명 정도 참여하는 미국 Healthcare Design Conference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영어역량, 전공체험, 미래비전 등을 갖추어 나가는데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건축교육이 5년제 건축학과와 4년제 건축공학과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며, 표준화하여 인증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공간+건축을 디자인하고 시설관리하는 융합학과로서 학과 명칭의 생소함과 모호함으로, 의료공간디자인학과는 새로운 자리를 잡아나가기가 쉽지 않다. 보편적 건축교육과 비교하면 역사 및 이론영역에서 개설교과목이 많이 부족하고, 도시문맥과 환경에서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건설산업과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과간 통합이나 융복합을 통해 건축교육의 새로운 자리매김이 요구되는 시기임은 분명하다. 이에 우리 건축학회에서도 전통적인 건축교육과 더불어 새로운 융합과 변화를 시도하는 융복합 건축교육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건축교육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기를 기대한다.

맺음말

의료+공간+건축을 지향하여 특성화 교육을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모두 교육에 적합한 의료관련 취업처를 찾아가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고령화와 의료선진화 요구에 따라, 건축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의료를 특성화한 건축교육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학과는 걸음을 띠었지만 디자이너, 설계자뿐만 아니라 medical planner가 나오는 날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지켜봐 주시는 많은 건축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